

# 명룡대전·한강혈전...총선열기 달아오른다

### 여야 대진표 절반 확정... 계양을 원희룡·이재명 빅매치 동작을 나경원-류삼영·광진을 오신환-고민정 격돌 86세대-전향 운동권 자존심 건 진검승부도 흥미진진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의 여야 대진표 절반가량이 윤곽을 드러냈다.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미니 대선급 대결이 성사됐다. 서울 동작을에서는 4선 중진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석열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이 맞붙게 됐다.

3일 국민의힘-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54개 지역구 중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곳은 132곳(51.97%)이다.

최대 관심 지역은 단연 계양을이다. 이 대표와 원 전 장관이라는 거대 양당 대선 주자들의 맞대결로 '명룡대전'이 성사됐다. 민주당의 텃밭 중의 텃밭인 계양을에서 원 전 장관이 얼마나 표심을 확보할지가 관건 포인트다. 원 전 장관으로서 유의미한 득표율이 나올 경우 잠룡으로서 입지가 공고해진다. 반면 이 대표로서는 '이겨야 본전'이다. 만약 패할 경우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최대 승부처인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광진·동작 등 9개 지역구)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동작을에서는 나 전 원

내대표와 민주당 영입 인재인 류 전 총경이 대결한다. 광진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과 친문계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승부를 겨룬다.

마포갑에서는 지난해 국민의힘 1호 영입 인사로 합류한 조정훈 의원이 이 대표 영입 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과 맞붙는다. '친문 황태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중·성동갑에서는 '전사' 전현희 전 국민의힘위원장과 '경제통' 윤희숙 전 의원이 경쟁한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86세대와 전향 운동권 인사 승부도 펼쳐진다. 마포을에서는 강성 운동권이었던 전향한 함윤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과 친명 핵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칼을 맞댄다.

성북갑에서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전향 운동권 인사인 이종철 전 대통령 직 인수위원장과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집행위원장 출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결한다.

서로의 텃밭에 도전장 내민 이들도 있다. 국민의힘 안방인 서초갑에서는 현역인 조

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김경영 전 서울시의원이 진검승부를 청했다. 반대로 민주당 텃밭인 노원을에서는 현역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1988년생인 김준호 서울대 국제재정연구센터 연구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은평갑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흥인정 전 국민의힘 은평갑 당협위원장장이 겨루게 된다.

3자 대결도 이뤄진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는 현역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광상인 변호사-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대결한다.

경기 대진표는 △수원갑 국민의힘 김현준-민주당 김승원 △수원병 방문규-김영진 △수원정 홍윤오-백혜련 △평택병 유의동-김현정 △광주를 황명주-안태준 △안양 동안을 심재철-이재정 △이천 송석준-엄태준 △구리 나태근-윤호중 등이다. 인천은 △동-미추홀을 윤상현-남영희 △연수갑 정승연-박찬대 △부평갑 유재홍-노종현 △계양갑 최원식-유동수 등이다.

'중원' 대전은 △동구 윤창환-장철민 △유성갑 윤소식-조승래 △유성을 이상민-황정아 등이다. 충북은 △제천-단양 임태영-이경용 △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이재한 △증평-진천-음성 경대수-임호선 등이다. 충남은 △천안갑 신범철-문진석 △공주-부여-청양 정진석-박수현 △서산-태안 성일종-조한기 등이다.



## 조국혁신당 창당 후원회장 문성근

### 1호 인재 신장식 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제3대 신당 '조국혁신당'이 공식 창당했다. 후원회장은 1989년 무단 방북해 김일성과 만났던 문익환 목사의 아들인 배우 문성근이 맡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9일 공지에서 "당 상징색은 '트루 블루'를 대표 단색으로 하며 '도발트 블루'와 '딥 블루'를 함께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트루 블루는 광주의 하늘을, 코발트 블루는 백두산 천지를, 딥 블루는 독도의 동해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강원 원주시청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실망하셨을 많은 분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투표를 권인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10석 이상을 얻어 원내 제3당이 목표"라고 말했다.

후원회장에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노무현재단 등에서 활동했던 문성근이 나섰다. 문성근과 함께 소설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 작가도 공동 후원회장을 맡는다. '1호 영입 인재'는 음주-무면허 운전 이력의 신장식 변호사다. 신 변호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만평 화필살인(畫筆殺人)

전대협 출신보다 더 위험한 남종련·한종련 출신을 등용 무기징역 사드니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건가

## 출마 선언도 미루고... 野 탈당파 영입나선 이낙연

### 설훈·홍영표 등과 잇단 만남 "더 큰 판판 후 광주 출마 선언"

이낙연(사진) 새로운미래(새미래) 대표가 3일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다. 그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인사들과 잇달아 연쇄 회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계 구도 급변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미래 측도 "더 큰 판을 만든 뒤 출마할 것"이라며 회동을 사실상 인정했다.

3일 정치권에 의하면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 실장과 2

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또 김종민 새미래 공동대표와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이 대표의 광주 일정이 취소됐다. 당초 이 대표는 3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에서 총선 출마 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다. 새미래는 2일 "민주세력의 결집·확장을 위해 사전에 급히 할 일이 생겼다"며 회견 연기를 공지했다.

이 대표는 대신 3일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비명계 설훈·홍영표 의원과 비공개로 회동했다. 두 의원은 컷오프 직후부터 새미래와 힘을 합치는 '민주연합(가칭) 창당' 3자 협의체를 구상해왔다. 새미래 측은 "더 큰 판과 좋은 구도를 만든 뒤 회견

하는 게 유권자들에게 더 큰 호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에 의하면 민주연합 참여가 예상되는 현역 의원 수는 10명가량이다. 새미래 측은 연대만 이뤄질 수 있다면 이 대표가 당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비명계에서는 '임종석 새미래 대표설'이 부상 중이다.

이 대표의 회생을 바탕으로 10명 단위의 현역 의원이 합류할 경우 민주연합은 단숨에 녹색정의당(6석)을 뛰어넘는 원내 제3당이 된다. 호남 등 텃밭 표심 분열을 우려하는 민

주당은 물론 '기호 3번'을 노리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도 큰 위협이 된다.

특히 개혁신당은 민주연합을 뛰어넘는 현역 의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1~3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선이 덜 가는 후순위 기호를 달고 총선을 뛰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양향자·조용천 의원 등 민주당 출신의 개혁신당 내 현역 의원들도 민주연합으로 기울 수 있다.

때문에 이미 경기 화성을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와 비명계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대표는 2일 자신의 SNS에서 "이번 총선에서 미래가 가득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화성읍에 도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은?

# 에너지 절약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